



# 나의 造船 40년을 돌아보고

김태섭 <전 신아조선 사장>

## 조선과 나의 인연

나는 내륙인 대구 근처 시골에서 태어나 대구에서 중학교를 다니게 되었다. 중학교 6학년때 6·25전쟁이 나서 공산군이 남쪽을 침략하는 바람에 학업이 중단되고 해군에 입대하게 되었다. 그로 인해 바다와 배를 가깝게 접하게 되었고, 그것이 인연이 되어 배에 흥미를 느끼게 되어서 해군제대 후 서울공대 조선공학과에 입학하게 되었다.

바다를 모르는 시골뜨기로서는 조선분야의 전공은 생각지도 못했었으나 전쟁이 나의 인생의 길을 결정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1957년 대한조선공사에 입사하여 20년을 근무했고, 한국선박연구소를 거쳐 대우계열의 대우조선과 신아조선에서 1997년에 퇴임하게 되어 조선분야에 40년을 그것도 대부분 조선소에서 선박건조에 종사하게 되었다.

## 그 당시 조선인의 숙원이었던 만톤급 (18,000dwt)의 건조

1950년대 우리나라 조선업은 아주 영세하고 일감도 없었는데다가 그나마도 일이라곤 선박수리가 대부분이었다. 조선소도 대한조선공사 외에 몇군데의 소형조선소가 있었고 그외는 목선을 취급하는 조선소가 대부분인 것이 조선업의 실정이었다.

조선공학과를 졸업후 대한조선공사에 6~7명 입사하게 되었으나 그때 주는 월급이 하숙비도 안

되는 6000환 정도여서 도저히 견디기 어려워 동료들은 다른 직장(조선분야가 아닌)으로 옮겨가서 좀 미련스러운 두 사람만이 그대로 남게 되었다.

철강선 건조로는 1960년대에 제주도와 울릉도행 화객선(500톤, 350톤급)의 철강선 건조를 시작으로 그후 1600톤, 3000톤, 4000톤 등의 화물선 건조에 참여하게 되고 지난 40년동안 조선에 종사하면서 수백척의 여러 가지 종류의 선박을 만들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처음 수출선이었던 대만 참치어선 20척 건조와 그 당시 조선인의 큰 소망이던 G/T 만톤급의 화물선 건조를 마쳤을 때의 기쁨은 무척이나 컸다. 만톤급의 건조를 계기로 GULF회사의 2만톤, 3만톤급의 정유운반선의 수출선 건조로 선박건조 기술을 정착시키고 대형선박의 수출의 길을 연 것은 조선기술자로서 큰 보람을 느끼게 했던 일들이었다.

대형선박의 수출의 길을 연 것은 선박건조에 실적과 경험이 없기 때문에 선박건조에 필요한 기본도면의 구입, 제작도면의 자체작성, 건조설비의 보완, 장비 및 치공구의 보완, 강선건조의 핵심인 용접기술의 향상을 위한 교육등 여러 가지를 극복하는 것들이다.

그때 조선선진국인 일본은 그렇게 호의적이 아니어서 유럽에서 기본도면등의 도움을 받았다. 그때 당시 같이 선박건조에 고생한 옛 동료들의 모습이 떠오른다. 이젠 모두들 은퇴했거나 노장으로

조선업에 있을, 조선의 초창기때 고생을 같이 하던 옛 동료 모두의 건투를 빌고 싶다.

### 대우조선 시절때 조선본부장으로 입사

1981년 대우조선이 준공되면서 여러 나라에서 수주한 선박의 건조가 시작 되었다. 시설규모가 크고 최신 설비의 조선소의 준공으로 세계의 유수한 해운회사들의 관심속에 여러 가지 선박을 수주하게 되었고, 나는 영입되어 조선본부장을 맡아 여러 선박들을 새롭게 구성된 조선소의 조선기술진과 함께 건조에 착수했다.

초창기의 선박건조는 설계와 현장 모두 선박 건조 경험이 정리되지 않았고 선박건조 기술도 축적되지 않아 시행착오가 많이 발생하였고 작업능력도 나빠서 그때 관리자들의 어려움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선박뿐만 아니라 해상석유탐사선, 석유채취선 등의 복잡한 구조물들의 제작도 동시에 같이 걸려 결국 많은 비능률적인 작업으로 채산면에서 보면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치게 되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조선책임자로서는 임무를 제대로 못했고 관리능력이 없는 관리자가 아니었나 생각된다. 그때를 정리해 보면 새로 신설되는 대형 조선소가 기술의 연계없이 시작하게 될 경우 선박건조생산이 정상화되고 경쟁력을 갖게 될 때까지 최소 6년 내지 8년이 걸린다는 아주 귀중하고 값비싼 교훈을 체험하게 된 것이다.

### 중형조선소 10년간 책임운영

1987년 대우조선에서 신아조선으로 옮기면서 사장을 맡게 되었다. 신아조선은 dwt 만톤급의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중소형 조선소이다. 그 동안의 경험을 살려서 시설능력에 맞는 자체의 선박

선형을 개발(container 300-700teu, cement 운반선 등)하여 집중·건조함으로써 생산성에 주력하고, 경쟁력 있는 조선소로 유지하는데 노력하면서 10년간 조선소를 운영하다가 1997년에 회사를 은퇴하게 되었는데 그러니 조선계 40년의 나의 생활을 마감하게 되었다.

중소조선소이기는 하나 조선소를 10년간 나의 책임으로 운영했고, 중형조선에서는 여러 가지 종류의 선박건조를 해야하기 때문에 여러 종류의 배지는 지식과 기술에 접하게 된 것을 조선기술자로서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 자랑으로 여겨진다.

### 은퇴 후 반류회에 참여

조선계 현역을 은퇴후 지금은 주로 건강관리에 시간을 보내면서 집에서 computer로 여가를 보낸다. 그리고 반류회에도 참여하고 있는데 반류회의 반류라는 뜻은 조선용어 伴流(wake flow)를 뜻한다. 반류회는 그간 조선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했던 분으로 서로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선관련 친목모임이다. 현재 회원이 사십여명인데 모두가 조선 또는 조선관련 분야의 동료, 선배, 후배들이다.

그래서 반류회에서는 옛 동료들과 만나 친목을 나눌 수 있고 반류회내 분과위원회에서는 조선관련 세미나도 가지면서 조선분야 관심 사항등도 서로 토의하고 지낸다. 은퇴후에 반류회 참가로 어떻게 보면 지난 40년의 조선분야의 현역생활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나의 여생도 조선과의 인연이 평생을 계속될 것으로 여겨지며 조선의 옛 동료들과 앞으로의 여생을 친목을 나누면서 지낼 것이다.